

평화시 「살다」 20180623

오키나와현 미나토가와중 3년 相良倫子 사가라 린꼬

나는 살아 있다.
맨틀(깊은 땅속)의 뜨거움을 전해주는 대지를 밟고,
상쾌한 습기를 품은 바람을 온몸으로 받으며,
풀 냄새를 코로 느끼며,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지금, 살아 있다.

내가 사는 이 섬은,
얼마나 아름다운 섬인가.
푸르게 빛나는 바다,
바위에 부딪쳐 물보라를 올려 빛나는 파도,
염소 울음소리,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밭으로 이어지는 오솔길,
피어나는 산의 푸르름,
아름다운 삼선(약기)의 울림,
쏟아 내리는 태양의 빛.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섬에
태어나 자란 것인가.

내 모든 감각기로, 감수성으로,
섬을 느낀다. 마음이 절로 뜨거워진다.

나는 이 순간을 살아 있다.

이 순간의 훌륭함이
이 순간의 사랑스러움이
지금이라는 편안함이 되어
내 안에 퍼져간다.

정말 이 기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소중한 지금이여
둘도 없는 지금이여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이여.

73년 전,
내가 사랑하는 섬이 죽음의 섬이 되어버린 그 날.

작은 새 지저귀는 공포의 비명으로 변했다.
아름답게 울리는 삼선은 폭격 소리에 사라졌다.
파랗게 펼쳐진 하늘은 내리는 총의 비로 캄캄해졌다.
풀 냄새는 시신냄새로 덮이고,
빛나던 바다 수면은
전함으로 가득 메워졌다.
화염방사기가 뿜어내는 불꽃, 어린 아이 울음소리,
불타오르는 민가, 화약 냄새.
떨어지는 폭탄에 흔들리는 대지. 피로 물든 바다.
이매망량(온갖 도깨비)처럼 모습을 바꾼 사람들.
아비규환의 비통한 전쟁의 기억

모두 살고 있었던 거다.
나랑 아무 것도 다르지 않은,
열심히 살아가는 목숨이었던 거다.
그들 인생을, 각각의 미래를.
의심 없이 꿈꾸고 있었던 거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애인이 있었다.
일이 있었다. 보람이 있었다.

나날의 작은 행복을 기뻐했다.
서로 손잡고 살아 있었다, 나와 같은 인간이었다.
그런데도
망가지고, 빼앗겼다.
살던 시대가 다르다고. 다만 그것만으로...
무고한 생명을. 당연한 듯이 살고 있던 그 날들을.
마부니 언덕. 눈 아래 펼쳐지는 평온한 바다.
슬퍼서, 잊을 수 없는 이 섬의 모든 것.
나는 주먹을 꽉 쥐며 맹세하노라.
빼앗긴 목숨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맹세하노라.

내가 살아 있는 한
이렇게나 많은 목숨을 희생시킨 전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을.
이제 두 번 다시 과거 같은 미래로 만들지 않을 것을.
모든 인간이 국경을 넘어, 인종을 넘어, 종교를 넘어, 온갖 이해를 넘어,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할 것.
산다는 것,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누구한테서도 침범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
평화를 창조하는 노력을 싫어하지 않을 것을.

당신도 느끼시리라.
이 섬의 아름다움을.
당신도 알고 계시리라.

이 섬의 슬픔을.
그리고 당신도
나와 같은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들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전쟁의 무의미함을. 진짜 평화를.
머리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전력戰力이라는 어리석은 힘을 가지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 따위, 진짜는 없는 것임을.
평화란 당연하다는 듯 살아가는 것.
그 생명을 한껏 발휘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나는 지금을 살고 있다.
모두랑 함께.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평화를 상상하며. 평화를 기도하며.
왜냐면 미래는
이 순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래는 지금인 거다.

너무나 좋은 내 섬.
자랑스런 모두의 섬.
그리고 이 섬에 사는 모든 생명.
나와 함께 지금을 사는 내 친구. 내 가족.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자.
이 푸름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고향에서.
참 평화를 발진시키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일어나
모두가 미래를 걸어가보자.

마부니 언덕에 바람 불어와
내 생명이 울고 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공명.
진혼가여 달아라. 슬픔의 과거에.
생명이며 올려라. 살아갈 미래에.
나는 지금을 살아간다.